

농정뉴스

추곡수매 6% 올려 7백만섬 매입

일반미 1백만섬은 별도수매 농협

정부는 올해 추곡(신품중벼)수매가격을 6% 인상, 내년 1월 20일까지 7백만섬을 전량 현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인상률 외에도 지난해까지 벼 水分 減量을 감안, 농민들로부터 벼 한가마(54kg)에 5백g씩 더 받던 첨가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수매가인상혜택은 7%가 된다.

수매가격은 1등급품 精穀기준으로 80kg들이 가마당 지난해의 6만3천3백70원에서 6만7천1백80원으로 3천8백10원이, 농민들이 실제수매에 응하는 粗穀을 기준으로 할때는 54kg들이(1등급품) 3만8백30원에서 3만2천6백90원으로 1천8백60원이 올랐다.

한편 신품중외의 일반벼는 農協을 통해 1백만섬을 수매하기로 하고 수매가격은 신품중수매가 인상률 6%에 産地시세를 감안, 일정액을 없애주는 방향에서 곧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산 벼수매가격

(54kg 정량기준)

| | |
|------|---------|
| 1 등 | 32,690원 |
| 2 등 | 31,220 |
| 등 외 | 27,790 |
| 잠정등의 | 24,910 |

후계자 8천5백명을 선정 개인당 최고 1천만원 지원

정부는 내년에 농어민후계자 8천5백명을 선정, 7백4억원의 후계자육성자금을 용자, 지원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내년에 선발할 후계자는 농민 7천6백50명(6백33억6천만원), 어민 8백50명(70억4천만원)으로서, 대상사업은 농민후계자의 경우 경종농업·과수·특작·축산등이다.

특히 농수산부는 내년의 후계자 1인당 자금지원 최고한도를 1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쌀·보리등 9개 곡물류 포장 표준화

1월 1일부터 2~40kg으로 거래편의 도모

87년 1월 1일부터 쌀·보리·콩 등 9개 곡물류의 최고거래단위가 40kg들이 부대로 바뀌고 지금까지 통용돼온 80kg들이 가마는 없어진다.

이와 함께 거래때 사용되는 소포장은 2·4·5kg의 3종류로, 중포장은 10·20kg의 2종류로 각각 표준화된다.

粗穀의 경우도 87년産 보리수

매시부터 현재의 54kg들이 가마 대신 40kg 부대가 쓰인다.

농수산부는 곡물의 운반 및 가격계산등 거래를 편하게 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부터 농수산부·농협·농어촌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이같이 거래단위를 표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곡종별 표준거래단위량

| 구 분 | 현 행 | 변경(표준거래단위) | | | 실 시 기 간 |
|--------|--------|------------|-----|-----|----------|
| | | 대포장 | 중포장 | 소포장 | |
| | kg | kg | kg | kg | |
| 벼 | 54 | 40 | — | — | 농수산부, 농협 |
| 결 보 리 | 50 | 40 | — | — | " |
| 쌀 보 리 | 60 | 40 | — | — | " |
| 쌀, 찹 쌀 | 40, 20 | 40 | 20 | — | " |
| 보 리 쌀 | 40, 3 | 40 | — | 4 | 농수산부 |
| 콩 | 50, 60 | 40 | — | — | 농 협 |
| 옥 수 수 | 60 | 40 | — | — | " |
| 팔 | 45, 60 | 40 | 20 | 2 | 농어촌개발공사 |
| 녹 두 | " | 40 | 20 | 2 | " |
| 참 깨 | " | 40 | 20 | 2 | " |
| 땅 콩 | " | 40 | 20 | 2 | "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리생산량은 '79년 1,000만섬 수준이던 것이 '84년에는 400~500만섬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85년에는 280만섬으로 감소하였을뿐만 아니라 보리에 의한 소득 또한 '79년 4,264억원에서 '86년 9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계약재배

보리

일동관리

갑작스런 강추위를 조심해야

농수산부 전작과 최 규 범

정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농어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보리쌀의 용도별 수급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화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87 보리계약재배 및 수매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을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겨울철 유휴농지와 노는 일손을 활용하여 보리를 성력재배 한다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경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농가수입으로 연간 2,954억원의 돈이 농촌에 들어오게되므로 농가살림 및 수도작등의 영농비 충당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잘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보리계약재배에 적극 참여하여 수매 목표량 달성을 위한 안전월동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계약재배실시 배경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보리는 쌀과 더불어 주곡의 위치를 지켜왔으나 80년이후 국민 식생활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보리의 소비가 격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의 불량, 농촌노동력의 감소, 대체작물의 재배가 확대됨으로서 보리의 생산량 또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개발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민들의 보리재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보리의 식용 소비감소에 대응하여 주정원료를 국산보리로 대체하는등 보리의 수요개발에 주력하였고,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출하희망량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해 준다는 방침을 밝히

는 동시에 84년 이후부터는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하므로써 생산농가를 지원해 왔다.

유희인력은 늘고 소득은 감소

그러나 이와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리생산량은 79년 1,000만섬 수준이던 것이 84년까지는 4~500만섬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85년에는 다시 280만섬 수준으로 격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에는 228만섬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한기인 겨울철에 유희농지가 늘어남은 물론, 보리에 의한 소득 또한 '79년 4,264억원에서'86년 973억원으로 줄어들게되어 보리주산지인 영호남 지역의 경우, 전체 농가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보리 대신 마늘, 양파등의 겨울작물이 주로 심겨져 해마

연도별 보리재배및 수매현황

| | 단위 | '79 | '83 | '84 | '85 | '86 | '87(p) |
|--------|-----|--------|-------|-------|-------|-------|--------|
| 재배면적 | 千ha | 449 | 289 | 287 | 165 | 141 | 230 |
| 생산량 | 천섬 | 10,408 | 5,334 | 4,870 | 2,802 | 2,288 | 4,000 |
| 수매량 | " | 4,184 | 3,661 | 3,103 | 1,714 | 1,208 | 2,600 |
| (수매비율) | % | 40 | 67 | 64 | 61 | 53 | 65 |
| 조수입 | 억원 | 7,753 | 3,973 | 3,628 | 2,087 | 1,704 | 2,954 |
| (소득) | " | 4,264 | 2,185 | 1,995 | 1,148 | 973 | 1,625 |

다 과잉, 과소생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보리수매가격을 사전에 결정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리 생산체제를 계약재배로 전환하고, 보리수매가격을 사전에 예시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보리재배를 할 수 있도록 생산의욕을 고취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가 확정환 '87 보리재배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첫째, 계약물량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식용 100만섬 이외에 주정용으로 160만섬 총 260만섬으로 정하고, 둘째 앞으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셋째 수매가격은 보리가 더 증산되도록 장려하는 뜻에서 금년도 수매가격에다가 최근의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5%를 더올려 정곡 1등급 기준 76.5kg 가마당 4만3천350원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농민에게 가격지지와 판로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뿐아니라, 금년에는 228만섬 생산, 120만섬 수매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400만섬 생산, 260만섬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약 1,400억원의 농가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부도 보리에 대한 수급관리를 안정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력재배위해 농자재지원

또한 정부는 새로운 보리생산 수매제도의 실시에 따라 농어민이 영농비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공동재배를 유도하고,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을 증설하며, 각종 농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는등 성력안전재배를 위한 기술지도를 더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87년산 보리 수매가격

| | 1 등 | 2 등 | 등 외 |
|-------------|--------------------|--------------------|--------------------|
| 쌀보리(원/50kg) | 19,020 (18,110) | 17,990 (17,130) | 14,900 (14,190) |
| 겉보리(원/60kg) | 25,860 (24,630) | 24,690 (23,510) | 20,920 (19,220) |

※ ()은 86년산 수매가격임.

안전월동관리대책

가. 보리의 내한성

보리가 얼어죽는 온도는 -17°C 정도이나 생육정도과 주위환경에 따라서 얼어죽는 온도가 달라진다.

즉, 적기에 씨뿌린 보리는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면 이에 따라 추위에 견디는 힘도 서서히 강해져서 -16°C 까지도 얼어죽지 않고 -17°C 의 낮은 온도가 1시간이상 계속될 때 얼어죽으나 $15\sim 20^{\circ}\text{C}$ (온실)에서 자란 보리는 내한성이 약해서 보리는 -3.5°C , 밀은 -6°C 에서도 얼어죽는 것을 보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 갑자기 강추위가 오면 많이 얼어죽게 된다.

적기 씨뿌림해야 내한성 강해

파종기별로 얼어죽는 경우를 보면 적기에 씨뿌린(잎 5~6매)

것은 -15°C 에서도 얼어죽는 것이 전연 없으나, 늦게 씨뿌린 것은 -13°C 에서도 8%나 얼어죽었으며, -15°C 에서는 54%나 얼어죽는 것을 볼 수 있어 안전하게 겨울을 넘기려면 무엇보다도 적기에 씨뿌리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아래표에서 알 수 있다.

눈이 내리면 지표온도 높아져

또한 겨울에 눈이 내리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보리에는 마치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눈위의 온도와 지표온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얼어죽는 피해가 줄어들므로, 예로부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풍년이 든다는 이야기는 이를 가르켜 한 말일 것이다.

이와같이 추운겨울을 안전하게 넘기려면 씨뿌린후의 보리발관리를 잘하여 추위에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파종기에 따라 얼어죽는 정도

(맥류연구소 : '81)

| 처리온도 | 지 속 시 간 | 적기파종(잎5~6매) | 만파(잎2~3매) |
|-----------------------|---------|-------------|-----------|
| -11°C | 1 시간 | 0% | 0% |
| -13°C | 1 " | 0 " | 8% |
| -15°C | 1 " | 0 " | 46 " |
| -17°C | 1 " | 50 " | 27 " |
| -19°C | 1 " | 100 " | 100 " |

눈 쌓인 양과 지표온도

(전북진흥원 : '81)

| 눈 쌓인 양 | 눈 위 온도 | 지표 온도 | 눈위와 지표 온도차 |
|--------|--------|--------|------------|
| 10cm | -12℃ | -5℃ | 7℃ |
| 20 " | -12 " | -3 " | 9 " |
| 30 " | -12 " | -1.5 " | 10.5 " |

나. 동해를 받는 원인

보리농사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제때에 씨뿌리지 못하고 늦게 뿌려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린 보리가 추위에 견딜성이 약하여 겨울동안에 동해를 많이 받게 되며, 또한 씨뿌린 후 습해를 받으면 연약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얇게 뻗어 겨울에 동해를 많이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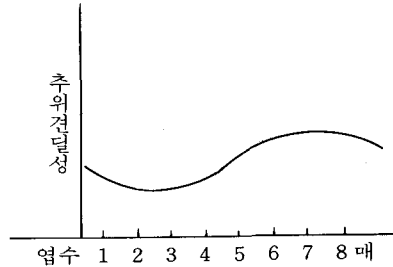
본잎 6매이상이면 오히려 나빠

그리고 적기보다 일찍 씨뿌려 잎이 7~8매로 자라면 추위견딜성이 강할 것같이 보이나 잎이 6매이상으로 너무 자라면 겨울을 나기 전에 어린이삭이 생기기 쉽고 어린 이삭이 생기면 잎이 5~6매로 자란 보리보다 오히려 추위견딜성이 약해서 동해를 많이 받게 된다.

다. 동해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앞으로 닥쳐올 추운겨울을 안

보리자람과 추위 견딜성



*본엽 5~6매 때가 추위견딜성이 가장 강함

전하게 잘 넘기기 위해서는 보리의 씨뿌림시기와 생육상태, 지역적인 환경여건을 살펴서 필지별로 알맞는 관리를 해주어야 하겠다.

○늦게뿌린 어린보리의 동해방자

앞그루 작물의 수확이 늦었거나 파종적기에 비가 와서 제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늦게 씨를 뿌리는 경우에는 잎이 4매이하로 자라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동해를 많이 받으므로 어린보리는 짚이나 퇴비를 덮어주어 동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짚·퇴비등으로 덮어주도록

덮어주는 재료는 짚이나 퇴비 또는 왕겨등이 있으며, 현비닐이 있는 경우는 현비닐을 덮어주면 효과가 더욱 좋다.

마른 볏짚을 덮어주는 경우는 10a당 약 300kg을 2~3등분으로 잘라서 고루 덮어주어야 이듬해 모내기때 논갈이가 편리하며, 300kg이상 많은 양을 덮어주면 이듬해 웃거름주기 전에 일부를 걷어내야 하므로 번거롭게 된다. 퇴비와 왕겨는 1,000kg을 덮어주되 가급적이면 퇴비를 덮어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

유기물을 덮어준 효과 (중수율 : %)

| 덮어준 재료 | | 경기 | 전남 | 경북 |
|--------|---|----|----|----|
| 볏 | 짚 | 32 | 27 | 10 |
| 퇴 | 비 | 51 | 41 | 11 |

생육기중 피복은 동화작용 방해

보리가 자라고 있는 중간에 볏짚이나 퇴비를 덮어주면 보리잎을 가려 탄소동화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리가 연약하게 자라므로 덮어주는 시기는 씨뿌린 후 잡초약을 뿌리고 곧 덮어주는 것이 좋다. 이때 덮어주지 못한 보리밭은 평균기온이 0℃이하로 내려가 보리의 자람이 정지된 후 덮어주어야 하며, 이 시기는 12월상~중순경이 된다.

○물빠짐골 정비로 습해방지

씨뿌림 후 습해를 받으면 보리가 연약하게 자랄 뿐만아니라 흡속에 산소가 적어서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얇게 뻗어 조금만 추위도 동해를 받는다.

월동전 습해피해

| | | | | |
|----------|----|----|----|----|
| 침수일수 (%) | 1 | 3 | 6 | 9 |
| 피해율 (%) | 15 | 19 | 22 | 53 |

중간배수로 만들고 잔흙 덮어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 11월 하순이나 12월 하순경에 물빠짐골을 잘 정비하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논보리에는 중간물빠짐골을 만듦과 동시에 흙을 잘게 잘 부수어 흙넣기를 하여 추위 견딜성을 강하게 해준다.

습해를 받으면 아랫잎부터 노랗게 변하는데 이럴 경우 보리가 더욱 연약해져서 언피해를 받므로 물빠짐골을 잘 정비하여 물이 골에 고이지 않게하고 잎에는 요소 2% 액, 즉 물 20ℓ에 요소 40g을 타서 10a에 100ℓ씩 6~8일 간격으로 2회 정도 뿌려주면 잎이 푸른빛으로 회복된다.

○흙넣고 밟아주기

제때에 씨뿌려 잎이 5~6매로 자란 보리는 땅이 얼기 전에 흙을 1cm정도 넣고 밟아주어 서릿

밭에 들뜬 보리를 가라앉혀주고 뿌리와 성장점을 땅속에 묻어 동해를 막아주어야 하며, 보리밭을 밟아주는 작업은 노력이 많이 들므로 20~30kg 정도 되는 로울러로 밟아주면 품이 66%나 적게 들고 사람이 밟아주는 것보다 효과도 크다.

흙넣고 밟아준 효과 (수원 : '77)

| 구 분 | 언피해(%) |
|-----------|--------|
| 흙넣고 밟아준 것 | 15 |
| 그대로 둔 것 | 45 |

본잎 4매이하 때는 흙넣기만 실시

그러나 늦게 씨뿌려 정상으로 자라지 못한 4일 이하의 어린보리에 흙넣고 밟아주는 작업을 동시에 하면 오히려 생육이 억제되므로 가벼운 흙넣기 작업만 해주는 것이 좋다.

흙넣고 밟아주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11월 하순경, 남부지방은 12월 상순경에 하는 것이 알맞으며, 흙넣고 밟아주기를 하므로써 가지치기가 잘되고 웃자라지 않아 동해를 적게 받음은 물론 소출도 많이 난다.

○웃자란 보리의 동해방지

이른 과중으로 잎이 7~8매로 자란 보리는 월동전에 어린이삭이 생기지 쉽고 어린이삭이 생기면 추위 견딜성이 약해져서 동해

를 받는다.

또한 제때에 씨뿌린 보리도 겨울에 0℃이상의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 웃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리가 연약하게 웃자라거나 어린 이삭이 생겨 동해피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웃자란 보리의 언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겨울철 기상에 유의하고 보리의 자람을 잘 살펴보아서 웃자랄 우려가 있는 경우는 흙을 2~3cm 정도 많이 넣어주고 40~50kg 정도 되는 로울러로 강하게 밟아주되 1주일 간격으로 2~3회 밟아주어 웃자람을 막아주어야 한다.

밟아주는 작업을 할 때는 토양 수분이 60~70% 정도 되는 때에 실시하되 이슬이 마르고 좋은 날씨에 바람부는 방향을 따라 밟아주어야 잎과 줄기에 상처가 적어 효과가 크다.

밟아주는 작업을 할 때 로울러가 없는 경우는 사람이 밟아주어야 하는데 딱딱한 구두를 신고 밟아주면 상처가 많아 오히려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나 부드러운 운동화나 고무신을 신고 밟아주어 안전하게 겨울을 넘기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